

청소년 성소수자 또래지지 가이드북

달라도 괜찮아!

다른 정체성을 알아가는
의책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명동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청소년 성소수자 또래지지 가이드북

달라도 괜찮아!

다른 정체성을 알아가는 책



목차

1. 준비 됐나요? 6



2. 나와 우리에게 대해 알아볼까요? 10



3. 우리 편견 없이 만나봐요! 15



4. 성소수자 차별을 알아볼까요? 18



5. 우리 이런 말과 행동을 알아두어요! 20



6. 성소수자와 함께 하는 나무의 10가지 약속! 26



저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다양한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나무

(불리고 싶은 이름)

입니다.

나무란? 나는 무지개와 함께 성장하는 지지자!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6색깔 무지개가 있어요. 나무는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무지개)를 지지하고, 다름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성소수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성소수자가 아무리 강한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주변의 편견과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 나무가 성소수자 친구 곁에서 큰 용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무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 내가 보고 느끼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어요.
- ♥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에 갇히지 않고, 나를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 ♥ 친구랑 재밌게 퀴어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어요!
(퀴어문화축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17p를 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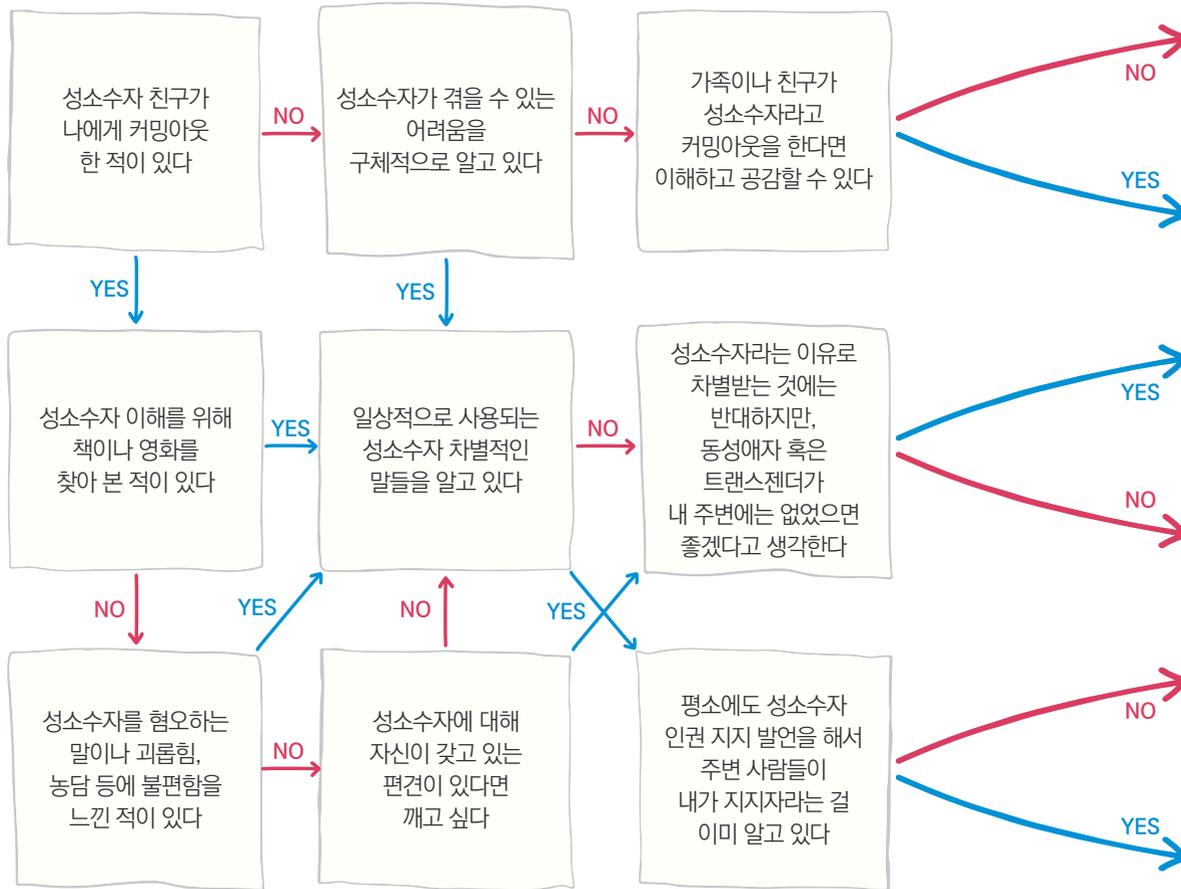


나무 ()님, 준비 됐나요?

아래 표는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과 '땡땡'이 2018년에 함께 만든,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에 실린 내용을 수정한 것이예요.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을 잘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소개해 보면 어떨까요?



✓ SELF CHECK! 나는 나무로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당신은 새로운 나무

이제 나무로 첫 발걸음을 내딛은 당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당신은 준비된 나무

마음만큼은 이미 나무인 당신.
이 가이드북의 4챕터(18페이지)를 꼭 읽어주세요!



당신은 노력하는 나무

든든한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더 많은 지지의 말과 행동을 알아두면 좋겠죠?
5챕터(20페이지)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든든한 나무

당신은 무지개빛으로 무장한 든든한 나무!
이 가이드북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세요!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자!



L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스스로 여성이라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에요.

G
게이
(남성 동성애자)

스스로 남성이라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남성이에요.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남성, 여성 어느 쪽이든 좋아요.

T
트랜스젠더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불일치 때문에 성별 위화감을 겪어요.

♥ LGBT란 단어를 들어봤나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붙여서 LGBT라 부르기도 해요. 성소수자는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5~8퍼센트 정도, 13~20명 중 1명 꼴로 있어요.

♥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나 자신의 성별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열어둔 '퀴스쳐너리', 태어날 때 신체적인 특징이 여성이나 남성으로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인터섹스',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정체성이 있어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스스로가 원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불러주는게 나무(여러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에요!

✗ '레즈 같아', '게이나?' 같이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욕설이나 공격하는 말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 표현입니다.

✗ '호모'는 성소수자를 괴롭히는 말로 굳어졌어요. 사용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어서, 모든 사람은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름을 붙여 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과, 성별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있어요.

이성애자(heterosexual) : 자신과 다른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시스젠더(cisgender) :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이제, 내가 아는 모든 정체성 용어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성애자 시스젠더' 인가요?

* 성소수자와 대비해 일반인, 정상인이란 말을 쓰는 건 편견적인 말입니다. 위와 같은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성별 위화감 Gender Dysphoria이 뭔가요?

성별 위화감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지정성별이 달라서 겪는 다양한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거나, 내가 바라는대로 날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눈초리를 받거나, 원치 않게 남자답게, 여자답게를 기대 받는 다양한 순간에 겪지요.

시스젠더의 경우 트랜스젠더가 겪는 성별 위화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스젠더들은 성별 위화감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서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트랜스젠더는 사회가 강요하는 성별 규범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모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세요.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가 같은 것인지 살펴 봐야 해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와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 의학과 과학, 사상을 근거로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동성애에 대해 배우고 존중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쳐요.

분명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교회들도 많지만, 이는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한 태도와 입장이라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다르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1요한 4:18-19, 공동번역개정판).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환대를 배우고 실천해야 해요.

질문 셋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인가요?**

특정한 성별 정체성·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만이 HIV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HIV/AIDS의 주요 감염 경로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확인되고 있어요. 여기서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란 '콘돔 없는 성관계', 또는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하지 않은 성관계'를 의미해요. 여기에는 이성간 성행위와 동성간 성행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HIV는 이성애자, 동성애자 상관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HIV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집단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질문 넷 **왜 굳이 퀴어문화축제를 같은 걸 해서 자기가 성소수자인 걸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평소에는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성소수자들은 시스젠더와 이성애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혼자처럼 느껴지기도,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 피해를 입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해요.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예요. 또한, 대중 역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느끼고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해보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조용히 살지, 왜 시끄럽게 축제를 열지?' 혹은 '자기들끼리 동거하면 되지, 왜 동성결혼 합법화를 원하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성소수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만약 자신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자기 안의 차별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민동 활동가들

퀴어문화축제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평등하게 어우러져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2000년, '퀴어문화축제-무지개2000'로 서울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전주, 경남 지역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겨요~





나무()님, 성소수자 차별을 알아볼까요.



♥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

우리 모두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또 태어났을 때 정해진 성별이 불편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연애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자친구/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어?"라는 말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학교 성교육 성소수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남녀끼리만 사랑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배웠어요. 저는 같은 성별의 친구를 좋아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수업시간에 동성결혼 찬반 토론을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애쓰며 토론에 참여했어요.

시험을 볼때 성별을 여/남으로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를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논바이너리인데... 한참을 고민했어요.

♥ 여/남으로 나누고, 여자니까/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것

내가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무언가 해야한다는게 아니라 나는 나인채로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야 겠죠.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화장실, 교복, 수학여행 시 방/샤워실 이용, 동아리활동, 건강검진 등 여/남이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쉬워요.

화장실에 가는데 누가 날 불러세웠어요. "학생! 여자야, 남자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성별이 모호해 보였나봐요.

체육시간, 남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아요. 친구가 "같은 성별끼리 왜 빼고 그래? 빨리 입고 나와."라고 외쳤어요.

바지, 치마 중 원하는 교복을 골라 입고 싶는데 선생님이 부모 허락 받아오래요.

♥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놀리고, 괴롭히는 것

성소수자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장난하듯이 괴롭혀서는 안돼요.

친한 친구랑 손을 잡고 있는데 누가 "동성 애자냐? 꼭 붙어다니네."라며 놀렸어요.

한 남자애가 남자 아이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게이나?"라며 놀리는 걸 봤어요.

다른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한 친구가 나의 걸 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성소수자라며 공개적으로 질문했어요. 답하고 싶지 않은데,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나는 개방적이다"라고 놀리듯이 말하면서 대답해보라고 계속 보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인데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있냐"하면서 "아직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

주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할 수 없다고 느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정체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알려지거나, 있는 그대로 잘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이 생겼어요. 하지만 선생님, 친구, 가족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성애자인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사실을 선생님이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애인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 핸드폰을 매일 보고 있어요.

용기내서 부모님에게 "나는 트랜스젠더 남성이고, 앞으로 딸 대신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힘들었지만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기 시작해서 기뻐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딸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나무()님, 우리 이런 말과 행동을 알아두어요!



성소수자 친구가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순간에 불필요한 말을 하면 안돼요.

“나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 같더라.”
“나 좋아하나? 네가 성소수자인 건 상관없고, 나만 좋아하지 마.”
“그래서 해봤어? 여자끼리/남자끼리 하는 건 어떤데?”

성소수자 친구가 당신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마음에 고마움을 전하고, 그 순간에 의도치 않더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조심할 수 있겠죠?

만약 나에게 고백한 성소수자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나만 좋아하지 마.”라는 말은 정체성을 거부하는 표현이어서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를 바라봐주며 정중하게 거절을 표현해보세요.



성차별, 성별표현에 대한 선입견을 알고, 바꿔 나가야 해요.

“오늘 게이 같이 입었네?”
“너 목소리 트랜스젠더 같아.”
“머리는 왜 잘랐어? 너 레즈비언이야?”
“아무한테도 끌리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럴 수가 있어?”

한 사람의 고유한 특징을 성소수자와 관련해 놀리거나 농담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남성이어서 혹은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씩 “왜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거지?”라고 질문해 보세요.



정체성을 아우팅[♥]해서는 안돼요.

“옆 반에 개 성소수자 아니야?”
“OO이 성소수자 맞아. 전에 나한테 얘기해줬었어.”

친구가 정체성을 고민 중이거나 당신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친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또 정체성을 추측해서 내는 소문에 함께 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나에게 대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아우팅이란?

아우팅은 성소수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성소수자라고 알리는 것이예요. 성소수자인 것이 잘못되고, 숨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성소수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인 것이 알려지면 혐오표현이나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는 것 또한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나무로서 아우팅은 꼭 조심해야겠죠?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면 안돼요.

“너만 힘든거 아니야. 성소수자 아니어도 다 힘들어. 왜 너만 이해 받으려고 하는거야.”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거야.”
“어떻게 네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 때문에 성소수자 친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봐주고, 그렇게해주세요. 그리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용기를 내고 있는 친구와 함께해주세요.



나무()님, 우리 이런 말과 행동을 알아두어요!



성소수자 친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해예요.

“성소수자는 성소수들끼리 살았으면 좋겠어.”
 “성소수자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았으면 해.”
 “내 주변에만 없으면 괜찮아.”
 “성소수자 싫어하지만 너는 내 친구니까 괜찮아.”
 “오, 나 게이 친구 갖고 싶었는데.”

성소수자인 친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인 세상이 바뀌어야 해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우리 모두가 다르듯, 성소수자들도 모두 다 똑같지 않아요.

“그거 네가 성소수자라서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야?”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들은 다 그렇다며?”
 정체성이 같다고, 모든 생각과 행동이 같을 순 없어요. 그건 누구나 그렇겠죠?
 넘겨짚지 말고 유일한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담은 말을 하면 안돼요.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야?”
 “성소수자는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요. 이 책을 보고, 멋진 나무가 되어가는 당신이 이야기해주세요. 그건 편견이라고!

존중

정체성을 존중해주세요.

우리가 정체성을 존중한다면 친구도 더 마음 편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 “정체성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잖아요. 친구가 정체성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이 아니라 너라고** 말해줄 거예요.”
- “성소수자에 대해 잘 몰랐을 땐 기사만 보고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친구가 커밍아웃 하고 나서 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궁금하게 있으면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고, 저도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관심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친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보다 평등한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거예요.

- “성소수자 친구가 힘들어할 때 제가 다 도와주기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소**랑 **성소수자 단체**들을 찾아보고 알려주었어요.”
- “인터넷에서 **성소수자 관련된 인터뷰**를 봤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 “**성소수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개봉했어요. 내용도 긍정적이고, 되게 재밌대요.”
-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도 차별해선 안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6가지 색연필로 색칠해보세요!”

지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친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잖아요?!

- “저는 항상 SNS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게시글을 보게 되면 ‘하트’와 ‘좋아요’를 눌러요.”
- “제 가방에 성소수자 자긍심(6색 무지개) 배지를 달기 시작했어요.”
- “친구랑 연애 이야기를 할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보다는 ‘애인’으로 말하려고 해요.”
- “커밍아웃한 친구가 조심스레 연애 이야기를 해줬어요.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고, 친구와 일상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솔직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대해주세요.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답일 때도 있습니다!

- “어느 날 친구의 커밍아웃을 듣고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에게 상처를 줬을까봐 많이 미안해서 다시 만나 사과를 했어요. 다행히 친구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반응해주는게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 “용기내서 커밍아웃한 친구에게 “알려줘서 고마워! 너를 더 알게 돼서 좋다. 우리 사이는 변함없는 거 알지? 그동안 말 못해서 힘들었겠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 안 할게. 고민되는 거 있으면 많이 말해 줘.”라고 얘기 했어요.”

함께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세요.

친구가 스스로 맞서기 힘들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 “한 친구가 성소수자를 놀리는 농담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단호하게 “왜 그런 말을 해? 하나도 안 웃긴다.”라고 했어요.”
- “내 주변에 누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말을 한다면 “나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해. 다른 사람 차별하는 게 훨씬 나쁜 일이야.”라고 당당히 말할 거예요.”



야!!
END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만을 위한 상담, 지원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 친구가 있다면 땡동을 소개해주세요!

문 여는 시간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9:00

상담 안내 유선전화 02-924-1227

카카오톡 친구찾기 > ID검색 > **땡동119**검색 > 친구추가

"청소년 성소수자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땡동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을 알려주세요."

LUSH FRESH
HANDMADE
COSMETICS

이 가이드북은 '러쉬 코리아 채리티팻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